



2021년 / 8월 3주차

■ 연구원 소식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관람 안내(2021년 8월 18일 14시)

우리 연구원 왕기석 이사가 원장으로 재직중인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국악콘서트<다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원칙으로 정규 공연시설인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650여석 수용 규모에서 150인 내외 입장)에서 열리는 이번 국악콘서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회원은 8월 17일(화)까지 연구원 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8월 17일(화) 18시 (063-286-3005)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안내

우리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 에서 진행하는 온다라 인문아카데미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실시간 강좌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가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온라인 실시간 강의

전북 도민 누구나!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PART 01

수강방법

- ① 유튜브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검색 후 접속 가능
- ② QR 코드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



PART 02

참여혜택

- ① 수강료 전액 무료
- ② 매 회차 추첨을 통해 상품 증정
- ③ 7강 이상 수강 시 선물 증정

※ 이번 강좌는 실시간 강좌로 진행되므로 강좌 관련 수강생 모집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SNS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전주대학교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 #온다라인문아카데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해당 강좌 포스터를 게시한 후, 인증샷을 센터 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립니다.

※ 강사 및 강의 주제, 강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차	일자	시간	강좌명 / 강사
1	8. 4.(수)	16시 - 18시	순국 그리고 비극적 죽음 / 이경배(전주대 HK연구교수)
2	8. 5.(목)		'의리(義理)'는 어떻게 '오리!'가 되어갔을까? -개항기 편 / 문경득(전주대 HK연구교수)
3	8. 11.(수)		서구 근대 심리학의 수용과 전파 / 이대승(전주대 HK연구교수)
4	8. 12.(목)		유교문화 전통과 한말의 자결 순국 / 서정화(전주대 HK교수)
5	8. 17.(화)		일본의 조선 침략과 이데올로기적 시나리오 / 김동희(전주대 HK연구교수)
6	8. 18.(수)		얼 사상과 나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 전종윤(전주대 HK교수)
7	8. 25.(수)		맹자(孟子)의 인민과 국가 / 오항녕(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8	9. 1.(수)	17시-19시	재일 제주인의 공동체와 문화 / 김창민(전주대 교양학부 교수)
9	-	-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랜선체험 I, II



랜선체험이란?

신청을 통해 선착순 30명 선발 후, 체험키트를 택배로 보내드리고 사진을 통해 진행되는 체험방식

[체험1]
문학체험 '작가 취재수첩,
길광편우(吉光片羽)'



[체험2]
'매듭인형, 알콩이와 콩심이'

※ 체험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침로303 천리관 212A호 | TEL 063) 220-3201-3, 3207
H.P www.jj.ac.kr/hk/ | E-MAIL jjondara@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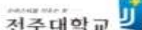
주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포천시립도서관 전주 최명희도서관

후원



■ 발로 쓰는 유럽 풍경 이야기 99

선사시대 유적 순례(1)

배스(Bath), 스톤헨지Stonehenge로 가는 거점도시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로마시대에 개발된 목욕탕으로 유명한 배스 시내전경(언덕에 있는 유스호스텔에서 촬영)

영국은 호수지역(Lake District)처럼 사람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경치들이 있는가 하면, 선사시대 유적을 비롯해서 역사적인 현장들 또한 도처에 있어서 영국을 돌아보는 테마여행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하고 교육적이기도 하다.

그 중 솔즈베리(Salisbury) 근교에 선사시대 유적이라 할 수 있는 스톤헨지(Stonehenge)가 있는 곳이 그곳이다. 보통은 스톤헨지로 가기 위한 거점도시로 솔즈베리를 드는데, 이는

런던에서 출발할 때 애기고 호수지역과 웨일즈 등 북쪽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배스(Bath)를 거점으로 한다. 왜냐면 솔즈베리에서 가는 것 보다 거리가 좀 멀기는 하지만, 배스 가까운 곳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대 유적들이 있고 배스의 어느 숙소에서든지 스톤헨지 투어 신청만 하면 셔틀버스가 와서 태우고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욕의 대명사로 알려진 배스를 돌아보는 것도 재미있다. 배스에는 목욕탕 관련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말하자면 기원전 9세기에 이곳에 켈트족이 살고 있을 무렵 블라더드 왕자가 나병으로 왕국에서 쫓겨나 배스에서 전전하게 되었고 먹고 살기 위해 돼지치기로 전락하였는데, 어느 날 연못으로 들어간 돼지를 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연못으로 들어간 왕자가 물속에서 이상스레 따뜻함을 느꼈고 물 밖으로 나와 보니 나병이 낫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배스의 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후일 로마인들이 이곳에 와서 공중목욕탕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면서 로마시대에 휴양지로 발전하였다. 지명 또한 왕자 Bladud의 이름에서 Bath가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오늘날 목욕탕의 대명사가 되었다. 지금도 시내에 로마시대의 목욕탕이 보존되고 있다.



로마시대에 건축한 목욕탕 앞에서 아들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유스호스텔, 발품을 팔아야 하지만, 고대 로마 건축물 같고 고즈넉한 느낌을 주며, 외딴 곳 숲속이라 조용하다.



배스 유스호스텔 앞에 펼쳐진 푸른 초원, 이 초원 역시 개발 못하도록 영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구입하여 보존하고 있다.

배스에 대해 떠오르는 또 하나의 기억은 유스호스텔과 관련되는 것이다. 배스 유스호스텔에서 옥스퍼드로 가는 날 아침이었다. 기차 시간 때문에 바빠 서두르다보니 맡겨 둔 유스호스텔 회원증을 놓고 나왔고 더더군다나 유스호스텔 방 열쇠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차역에 도착해서야 알았다. 기물을 가지고 나오다니 야단났다! 20-30분 거리에 있는 그곳으로 돌려주러 갈 시간은 없고 난처하였다.

이를 어찌지 난감해 하다가, 사람에게 부탁 할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침 출근 시간이라 다들 바빠 움직이고 있어서 말 붙일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럴 때 관상(?)을 좀 볼 줄 알아야 한다. 얼굴 표정이 온화하고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친절하다는 것을 경험상 깨우친 바가 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착하게 생긴 20대 여성이 가까이 다가오기에 그녀에게 "Excuse me, Would you do me a favour?" 라고 내 댄에 경어를 섞어서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다행히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응답을 한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 표정이 역력하다고 느끼고는 "내가 열쇠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따 퇴근할 때 갖다 줄 수 있겠어요?" 라고 부탁 했더니 쾌히 그러겠다고 한다. 그래서 내친김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했다. 유스호스텔로 전화를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동전을 주니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전화 카드로 통화를 해 주었다.

여행할 때는 때론 염치불구도 필요하다. 예의를 꼭 갖추어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때도 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전주에서, 외국 여행자 특히 배낭 여행자를 만나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그냥 보내지 않는다.

아무튼 그 영국 아가씨 덕분에 근심을 내려놓고 여행 할 수 있었고 옥스퍼드에 잘 도착하여 유스호스텔에 들어가서 열쇠가 잘 전달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숙박 접수를 하면서 유스호스텔 회원증을 배스 유스호스텔에 놓고 왔다고 했더니, 옥스퍼드 유스호스텔 직원이 배스로 전화하여 내 회원증을 팩스로 받아서 숙박 수속도 수월하게 해주었다. 모두 여행객을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행을 다니다보면 친절이나 배려하는 선진국 사람들이 지닌 덕목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선진국인가?! (스톤헨지는 다음 호에)